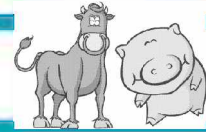


소· 돼지 가격전망



소

약보합세 흐름 유지



설 명절이 끝난 이후 소 값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설이 지난 계절적 비수기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가 겹쳐 존하 불량은 늘어날 반면 소비는 부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3월 들어 존하불량 감소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여 큰 폭의 하락세가 주춤한 상태다. 이후 소 값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배 분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 만약 광우병 이전처럼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을 허가한다면 농가가 반을 흥격은 볼 보듯 보인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는 된다 안된다의 문제보다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인 듯 보인다. 시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기준이 명확히 밝혀져 내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 언제까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국내의 소 값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이차회 다가올 고난이라면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소 값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약보합세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돼지

약세로 시작해 오름세 보일듯

돼지 값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절 이후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소비 감소와 일선 육가공 농장이 작위 물량을 줄이면서 생긴 출하물량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시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이후와 값싼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시장 잠식, 사료 값의 인상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값싼 수입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잠식은 돼지 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산 돼지의 존하 불량이 조금만 늘어도 돼지 값이 큰 폭으로 요동을 치는 것은 수입돼지고기의 시장잠식으로 국내 소비 기반이 그만큼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갈수록 양돈 산위 주변의 이견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며, 고밀육 생산을 위한 정부와 농가의 정책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운 겨울을 지내고 맞이하는 봄은 따뜻하기 마련이다. 갈수록 날이 따뜻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적체된 존하불량이 감소하면서 돼지 값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변 여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수동적인 자세모던 능동적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미트뉴스제공>

